

부대 관리 행정 부담 줄이고 업무효율·속도 높이고

육군 지능형 스마트부대 시범사업 완료
총기 불출, 센서 정보로 실시간 집계
부대 상황 발생 시 표준 매뉴얼 추천도

육군 각 부대의 인원·장비·탄약 등을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해 효율적인 작전 및 부대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육군은 16일 '육군 지능형 스마트부대' 시범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9보병사단 본부와 예하 여단 등에서 3단계에 걸친 지능형 스마트부대 시범구축 사업을 해왔다. 시범 사업을 완료한 9사단의 경우 지휘 통제·부대방호·군수지원·교육훈련·병영복지·재난관리 6개 분야 데이터를 모바일 기기,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과 연결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 플랫폼 등 부대 운영에 필요한 13개 체계를 융합함으로써 행정 수요를 최소화하고 전투준비와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지능형 스마트부대는 상황 발생 시 스마트 플랫폼이 상황에 적합한 표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추천한다. 이를 토대로 지휘관과 참모들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거나 부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장병들이 출동할 때 센서 정보를 활용해 총기 불출현황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등 기



육군이 지난해 10월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EX 2024' 전시장에서 지능형 스마트 부대 개념을 선보이고 있다.

육군 제공

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부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시범 사업 결과 지능형 스마트부대에서는 행정업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작전명령서·부대일지 등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는 AI가 스마트 플랫폼으로 초안을 자동 작성해 시간을 줄였다. 병사들은 공용 컴퓨터와 키오스크 등을 통해 휴가진료를 신청하고 간부들은 이를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승인·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속도도 높아졌다.

한편 육군은 '검색-증강 생성(RAG) 기

반, 소형언어모델(sLLM)'을 도입해 장병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문서를 참조해 답변 정확성을 높이는 기술로, 현재는 각종 훈령·규정·업무 길라잡이에 대한 AI 학습이 완료됐다. 앞으로는 육군 인공지능센터 주도로 연합작전에 필요한 자동 번역기능과 대량의 문서 요약 기능, 장비 정비방법 등 추가적인 모델 학습을 진행해 군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최적화할 예정이다.

육군은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9년

까지 전 육군 부대를 지능형 스마트부대로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을 주관한 최창운(소장)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은 "앞으로 육군은 행정업무체계 중심의 부대 운영에서 데이터 기반 부대 운영, 모바일을 활용한 현장 중심 업무 수행, 군 특화 AI 업무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부대로 변화해야 한다"며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발걸음이자 국방혁신 4.0의 핵심 목표인 '싸워 이기는 군'을 만들기 위해 지능형 스마트부대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철저한 경계 빈틈은 없다

잠수함사 기지방어대 경계작전 훈련

해군잠수함사령부(잠수함사) 기지방어대는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군항에서 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신속대응중대와 함께 경계작전 시범식 훈련을 했다.

훈련은 잠수함사의 부대 방호태세를 확립하고, 진해지역 부대 방호를 지원하는 진기사 신속대응중대 소속 해병대원들과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에서 신속대응중대는 △전술 상황에서 차량 승하차 요령 △병력 전개 중 사주경계 및 은폐·엄호 요령 △의심물체 식별 시 원점 보존 절차 등을 시연했다. 기지방어대 장병들은 이를 실습하며 소부대 전술·



16일 열린 해군잠수함사령부 경계작전 시범식 훈련에서 장병들이 병력 전개 중 사주경계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

부대 제공

기동 이해도와 임무 수행 능력을 높였다. 훈련을 주관한 조규창(소령) 기지방어

대장은 "국가전략자산인 잠수함과 기지 생존성은 전투력 창출과 직결된다는 각오로

완벽한 부대 방호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육지도 밝히는 '학업 열정' 뒤에 해군 장병 있다

3함대 266해상감시장비운용대
공부방 열고 교육 재능기부

해군 장병들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해군3함대는 16일 "부산항만방어진대 266해상감시장비운용대 장병들이 육지초

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도서 지역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재능기부는 초등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접한 김해성 병장과 이진성 상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시작

됐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육지중학교 도서실에 '육지등대공부방'을 마련하고, 육지초등학교 5·6학년 10여 명에게 보충수업을 해주고 있다.

김 병장은 수학, 이 상병은 영어를 맡아 매주 화·목요일에 기본기 중심의 수업을 한다. 특히 과외·멘토링을 했던 경험을 활용해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학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사회도 장병들의 활동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16일 육지학교살리기추진위원

회 주관으로 공부방 개소식을 개최한 것. 공부방은 이미 문을 열었지만 개소식을 별도로 준비해 부대와 장병들의 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상병은 "아이들이 수업을 즐기고 학업에 자신감을 갖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며 "교육자원이 부족한 육지도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